

로샤 검사에 나타난 북한이탈주민의 대처와 방어*

최 윤 경

김 종 남

채 정 민†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대처와 방어 전략은 스트레스 반응을 약화시키도록 작용하는 심리적 기제라는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방어는 현실의 어떤 측면을 왜곡해서 지각하는 반면, 대처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관계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로샤 검사에 나타난 북한이탈주민들의 대처와 방어의 특징을 밝히려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44명의 북한이탈주민과 42명의 남한주민으로, 이들은 출신지역과 성별에 따라 네 집단, 즉 남자 북한이탈주민(N=16), 여자 북한이탈주민(N=28), 남자 남한주민(N=17) 및 여자 남한주민(N=25)으로 분류되었다. 모든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로샤 검사를 실시하였고, 로샤 원자료는 Exner(2003)의 종합체계에 따라 채점되었다. 분석을 위해 대처 혹은 방어와 관련된 로샤 변인들이 선택되었다: EA, CDI, Adj D, EB style, Lambda, Zd, X-%, Xu%, W:D:Dd, P, 반응시간 및 검사를 수행하는 동안의 행동특징. 다른 집단에 비해 여자 북한이탈주민은 빈약한 대처자원(낮은 EA), 적응의 어려움(Adj D<0), 및 현실 왜곡(높은 X-%)을 나타낼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들은 또한 더 많은 '모르겠다' 반응과 반응시간이 더 지연된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빈약한 대처자원으로 인해 여자 북한이탈주민이 스트레스에 더 취약할 수 있으며 사회기술훈련과 같은 심리적 개입이 남한 사회에서 이들의 성공적인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에 대한 함의가 논의되었다.

주요어 : 북한이탈주민, 로샤 검사, 대처, 방어, 심리적 적응

* 본 논문은 2007년 한국심리학회 학술심포지움에서 구두발표 되었음.

이 논문은 2009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 학술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교신저자 : 채정민,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서울시 강북구 미아3동 193
tel: 02) 944-5021 / E-mail: minspin@unitel.co.kr

북한 내 사회경제적 사정이 악화되고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북한이탈주민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7년 2월에는 1만 명을 넘어섰고 2008년 12월까지 총 15,057명이 국내에 입국했다(아시아투데이, 2009. 6. 29). 과거에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접 넘어오는 경로가 이용되었지만 북한의 경계가 삼엄해지자, 1995년 이후에는 중국을 비롯한 제 3국을 경유한 남한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최창동, 2000, p.351). 또한 북한을 이탈하여 제 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이 적게는 3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이재민, 황선영, 2008),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유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될 전망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유입 증가와 더불어, 이들의 남한 내 사회문화적, 심리적 적응과 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으며, 심리학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조영아, 김연희, 유시은, 2009; 채정민 2003; 채정민, 이종환, 2004; 채정민, 한성열, 2003). 북한이탈주민들은 난민들이 보이는 반응과 유사하게 우울증(예: 채정민, 이종환, 2004),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예: 엄태완, 2005), 신체화 장애(예: 유정자, 2006), 음주문제(예: 김연희, 2006)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가장 많이 연구된 우울증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주민이나 남한의 빈곤층과 비교하여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엄태완, 2005). 우울증의 유병율은 15%(김연희, 2006)에서 54.7%(조영아, 전우택, 유정자, 엄진섭, 2005)에 이르기까지 연구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를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나 남한 내 정착 기간, 우울증 척도의 진단 기준

점수의 차이 등으로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일군의 연구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자기보고식 연구방법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과장된 자기 평가 경향이나 긍정왜곡 경향이 보고되기도 하였고(김광익, 1999; 채정민, 한성열, 2003), 실제적 이득에 따라 왜곡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김종남, 최윤경, 채정민, 2008). 김종남 등(2008)은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 연구가 명백 문항들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이나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보다 더 우울하다고 보고하고, 남한에서 부적응자라는 낙인을 받고 싶지 않으면 실제보다 덜 우울하다고 보고할 수도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기억 회상에 의존한 면접법 역시 또 다른 자기보고 형태로, 자신의 처지를 고려하여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료의 신빙성과 타당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03).

김종남 등(2008)은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역학연구센터 우울증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점수와 로샤 검사의 우울증 지표(Depression Index, DEPI), 대응손상지표(Coping Deficit Index, CDI), 및 자살 가능성지표(Suicide Potential Index, S-CON)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북한이탈주민이 주관적으로는 더 우울하다고 보고하였으나 로샤 검사의 지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CES-D로 측정된 주관적 우울과 로샤의 DEPI 간에 상관(r)이 남한주민은 .23인데 반해 북한이탈주민은 -.24로, 상관의 방향이 반대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이 의식적인 검사 수행에서 실제 경험과 다르게 의도적인 반응 편향을 나타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또 다른 흥미로운 결과는, 북한이탈 여성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CDI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처의 어려움 및 이로 인해 우울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은 안면타당도가 높은 자기보고식 검사에서는 더 우울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검사 목적이나 의도를 알 수 없고 모호한 로샤 검사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기보고 형태의 검사나 면접에서 의도적으로 반응을 왜곡할 수 있다면 이러한 자료에만 의존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 특성을 밝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이상적인 방안으로, 김종남 등(2008)은 암묵적 연합검사와 같은 실험법이나 로샤 검사와 같은 투사적 검사를 통한 다차원적 평가를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검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로샤 검사처럼 모호하고 낮은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반응 양상을 확인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특성과 적응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로샤 검사가 북한이탈주민에게 어떻게 인식될 것인가? 로샤 검사는 질문지나 다른 검사에 비해 비구조화되어 있고 검사 자극과 검사 지시 자체가 모호하여 수검자들의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투사적 검사이다. 투사검사에서 모호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될 수 있는데, 하나는 구조적 모호성이고 다른 하나는 해석적 모호성이다(Murstein & Mathes, 1996). 구조적 모호성은 물리적 자극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의 정도에 의해 결정되

고, 해석적 모호성은 자극에 반응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방식의 다양성에 의해 결정된다. 로샤 검사는 다른 투사적 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조적 모호성과 해석적 모호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Leichsenring, 2004).

Budner(1962)에 따르면, 모호한 상황이란 세 가지 종류, 즉 새로운 상황, 복잡한 상황 및 모순된 상황으로 구분될 수 있다. 새로운 상황에서는 단서가 충분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고, 복잡한 상황에서는 너무나 많은 단서가 존재하며, 모순된 상황에서는 단서를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 Norton(1975)은 이러한 개념에서 더 나아가, 모호성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즉, 1) 다중 의미, 2) 모호성, 불완전성 또는 파편화(fragmentation), 3) 그럴 듯한 개연성(probability), 4) 비구조화(unstructured), 5) 정보의 부족, 6) 불확실성, 7) 비밀관성과 모순, 8) 막연함(unclear).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로샤의 잉크반점과 “무엇처럼 보입니까?”라는 단순한 검사지시는 다분히 모호하고 불확실하여 어떤 반응해야 할지 막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북한이탈주민에게 다분히 낮설고 모호하게 지각될 것이라 예상된다. 물론, 비교집단인 남한주민들에게도 로샤 검사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사회문화적으로 심리학이나 심리검사를 접해본 적이 없는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더욱 생소하게 느껴질 것이다. 더욱이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정착하기까지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삶의 위기를 경험하고 익숙한 기존의 생존 방식을 버리고 낮설고 새로운 남한 사회와 문화에 새로이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더욱이 탈북 과정에

서 장기간 숨어 다니면서 들킬까봐 걱정하는 생활을 했다면 기본적인 신뢰감과 안전감을 경험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북한이탈주민의 이러한 현실 상황을 고려한다면 모호성이 매우 높은 로사 검사 상황은 이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것이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처와 방어가 작동될 것이며, 이러한 대처와 방어는 로사 검사에서의 반응이나 검사 상황에서 행동적 특징으로 표현될 것이라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대처와 방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이유는 대처와 방어가 심리적 적응이나 정신건강, 주관적인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예: Lazarus, 1996). 스트레스 연구자들은 개인이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이 생리적 상태(Biondi & Picardi, 1999)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관련된 정신장애 및 신체장애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Olff, Brosschot, & Godaert, 1993; Schnurr & Green, 2004). 스트레스 사건에 성공적으로 대응한다면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주관적 고통은 감소하고 안녕감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의 대처와 방어에 대한 연구는 이들의 남한내 정착과 심리적 적응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대처와 방어는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여러 연구자들은 이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Haan(1977)은 위협을 다루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전략을 방어 및 대처라는 양극의 차원에서 보았는데, 방어는 현실 왜곡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대처는 상황의 정확한 본질을 수용하는 것과 관련된 전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스트레스의 인지적 활성화 이론(Cognitive Activation Theory of Stress,

CATS, Levine & Ursin, 1991; Ursin & Eriksen, 2004)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대부분의 스트레스 이론과 마찬가지로, CATS(Ursin 등, 2004)에서도 유기체에 대한 위협은 일반적이고 불특정적인 신경생리학적 활성화 또는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는데, 여기에는 뇌의 생화학뿐만 아니라 생리적 시스템, 내분비계, 자율신경계 및 면역계가 모두 관여한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Gravdal & Sandal, 2006).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CATS는 인지적 요인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스트레스 반응이 자극과 가능한 반응 결과에 대한 획득된 기대에 의해 좌우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대처와 방어 전략은 스트레스 반응을 약화시키도록 작용하는 심리적 기제라는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방어는 자극 기대와 관련된 반면, 대처는 반응 기대와 관련된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현상이다(Ursin & Eriksen, 2004).

대처는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획득된 기대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가정이 내포되어 있다. 반응 결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는 중추신경계 및 운동계, 자율신경계, 내분비계 및 면역계의 활성화(스트레스 반응) 감소와 관련이 있다(Gravdal & Sandal, 2006).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지속적인 각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건강의 위협을 의미한다(Levine & Ursin, 1991).

방어는 대처와는 다른 여과 기제로, 상황을 지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현실의 어떤 측면을 왜곡함으로써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제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Eriksen, Olff, & Ursin, 1997). 방어는 심리적으로 위협적인 생각과 감정을 부정(denial)하거나 자신의 판단과 합리성을 지나치게 확신하는 경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신체적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개인이 자신이 사용한 방어 전략을 자각하지 못하더라도, 방어로 인해 위협적 자극에 대한 내분비 반응이 감소될 수 있다(Ursin 등, 2004). 또한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한 사람은 새롭고 위협적인 정보에 대한 뇌파 및 유발전위 반응이 다르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Eriksen, Nordby, Olff, & Ursin, 2000).

한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대처와 방어를 조사한 선행연구들(신행우, 이종한, 한성열, 허태균 및 채정민, 2004; 조영아 2003; 채정민, 한성열, 2003)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행우 등(2004)은 북한이탈주민이 성격 특질적으로 어떤 대처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울 수준 및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 대처양식이 다를 것이라고 가정하고 북한이탈주민을 고우울집단과 저우울집단으로 분류하여 대처양식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저우울 집단은 고우울 집단에 비해 적극적, 접근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고, 개인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접근적 대처를, 편견을 포함한 대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적극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신행우 등(2003)은 이러한 결과를 적극적이고 접근적 대처가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응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채정민과 한성열(2003)은 자기고양 편파가 심리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북한이탈주민 대학생과 남한 대학생의 자기고양 편파와 사회적 바람직성을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회귀분석에서는 자기고양 편파가 우울감 및 생활만족도에 유의하게 높은 부적인 설명력을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남자 북한이탈주민에게서 더욱 두드러졌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

를 남자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적응하는 과정이 더 어렵고 복잡 미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조영아(2003)는 북한이탈주민들과 남한주민의 방어기제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북한 이탈주민들은 남한 주민들에 비해서 능동적 방어유형, 감정 억압적 방어유형을 많이 사용하고, 구체적으로 부정, 분리, 철수, 자제, 이타주의, 과제지향, 예견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주로 자기보고에 의존하여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만일 북한이탈주민들이 의도적으로 반응을 왜곡하거나 은폐한다면 안면 타당도가 높은 설문지나 면접 방식은 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자아방어라는 무의식적 과정을 질문지와 같은 의식적인 방식으로 측정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한 선행 연구들과 달리, 대표적인 투사적 기법인 로샤 검사를 사용해서 북한이탈주민의 대처와 방어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로샤와 같은 투사적 기법은 개인이 자각하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측면에 대해서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Zubin, 1950) 로샤 검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나 면담의 한계를 보완하여 방어와 같은 무의식적 기제를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로샤 검사에서 대처와 방어를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데, 오래 전부터 대처와 방어를 평가하려는 방법이 꾸준히 시도되어 왔다. Schafer(1954)는 로샤 검사에서 수검 태도, 채점, 내용분석 등을 통해 방어기제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예컨대, 억압은 로샤 검사에서 전체 반응수(R), 인간운동반응(M), 전체반응(W), 및 매우 작은 영역의 부분반응(Dr)

의 감소, 반응 실패나 반응시간의 지연, 유체 색 및 음영반응의 증가, 반응의 정교성 및 정확성의 감소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Schafer(1954)의 제안에 대한 신뢰도나 타당도 검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Holt(1977)는 정신분열증은 원시적인 추동 파생물의 억압 실패의 산물이라는 추동-구조 모델에 기초하여 일차과정 사고의 표현과 그것의 통제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로샤 검사를 이용하여 일차과정 채점체계(Primary Process Scoring System)를 개발하였다. 여기에는 크게 네 가지 변인이 포함되는데, 일차과정의 내용 지표, 형식 지표, 통제와 방어 및 전반적인 평정이 그것이다. 그 중 통제와 방어는 일차과정에 대한 재료가 조절되고 조정되는 방식과 이것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방어와 방어 측정치로 적합하고 네 번째 전반적인 평정 역시 방어와 관련이 있는 측정치를 포함하고 있다. Holt의 일차과정 채점체계에 대한 신뢰도 연구들에 따르면 전반적인 평정에서 얻어진 평정자간 신뢰도 수준은 만족스러웠지만 개별적인 범주에 대한 결과는 실망스러운 것으로 평가되었다(Lerner, 1998/2003).

이후 Lerner와 Lerner(1980)는 Lerner 방어기제 척도를 개발하고 평정자간 일치도도 83~100%로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Lerner 방어기제 척도는 분열(splitting), 평가절하, 이상화, 투사적 동일시 및 부정을 측정하며, 이들은 신경증과 경계선 장애를 변별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Lerner 방어기제 척도는 주로 원시적인 방어기제를 측정하고 있어, 본 연구자들은 비교적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방어를 측정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하였다.

로샤 검사의 해석체계 가운데,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Exner(1993, 2003)의 종합체계(Comprehensive system)이다. 종합체계에 포함된 자료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들은 첫째, 반응을 할 때 수검자가 사용한 용어, 둘째, 반응 및 반응의 채점에 반영되는 반응 계열, 그리고 마지막으로, 60개 이상의 변인, 비율, 백분율(%), 및 지표를 포함한 약 100여개의 변인으로 구성된 구조적 요약이다. 이러한 세 가지 세트의 자료가 수검자의 심리에 대해 타당한 해석을 제공할 수 있는 로샤 검사의 근간이 된다. 그러나 이렇게 수많은 변인들이 로샤의 해석을 그만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Exner(2003, p.223)는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이러한 로샤 변인들을 몇 가지 심리적 속성에 따라 군집으로 묶어 해석할 것을 제안하였고, Weiner(2003/2005, p.139) 역시 적용 모델에 입각하여 구조적 변인을 6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해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ner(2003)의 통제 및 스트레스 내성 군집은 Weiner(2003/2005)의 스트레스 관리차원에 상응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관심 변인인 대처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ner(2003, p.231)는 통제(control)란 어떤 상황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내리고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통제 및 스트레스 내성 군집은 요구(demand)에 대처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유용한 적응자원과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Exner(1993, 2003)는 방어를 측정하는 로샤 변인을 체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앞서 언급한 Haan(1977)과 Ursin과 Eriksen(2004)의 방어의 개념에 부합하는 로샤 변인을 선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Haan(1977)과 Ursin과 Eriksen

(2004)은 공통적으로 방어가 상황을 지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현실의 어떤 측면을 왜곡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로샤 군집 증 정보 처리와 인지적 중재(mediation) 군집은 주의를 기울이고 대상을 지각하는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Weiner(2003/2005)의 경험에 대한 주의 차원에 해당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처리와 인지적 중재 군집에서 현실 지각의 왜곡과 관련된 몇몇 변인을 선정하여 방어의 직·간접적인 측정치로 간주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로샤 검사에 나타난 대처와 방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모호성 인내가 있는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편안하게 느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Budner, 1962) 모호성 인내라는 성격특성에서는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차이가 없지만 북한이탈주민은 로샤 검사 상황을 더욱 생소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변인이 검사 반응과 행동적 특징에 반영될 것이라 가정하였다. 또한 이주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신건강문제에 성차가 있으며 (Ataca & Berry, 2002), 선행연구 (예: 김종남 등, 2008)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자와 여자가 다른 양상들을 나타내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양측 주민을 구분하여 네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은 대처와 관련된 로샤 변인에서 어떠한 특징을 나타낼 것인가? 둘째, 북한이탈주민은 방어와 관련된 로샤 변인에서 어떠한 특징을 나타낼 것인가? 셋째, 북한이탈주민은 로샤 검사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적 특징을 나타낼 것인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처음에 로샤 검사를 실시한 대상은 스노우볼링(snow-balling) 기법에 의해 선정된 북한이탈주민 55명과 남한주민 53명이었으나 로샤 검사에서 전체 반응수가 14개 미만인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최종 분석에 포함된 대상은 북한이탈주민 44명(남자 16명, 여자 28명)과 남한주민 42명(남자 17명, 여자 25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평균 연령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자 38.06±10.45세, 여자 34.96±7.96세이었고, 남한주민의 경우, 남자 34.47±13.43세, 여자 36.80± 11.35세로, 네 집단 간 연령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F(3, 82) = .451, p > .05$).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을 탈출한지 평균 5.95± 4.66년이 경과하였고, 평균 1.16±1.37년 동안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가도구

모호성 인내 척도

Budner(1962)가 모호성 인내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로 원래는 5점 척도로 된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재윤(1993)의 연구를 기초로 13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모호성에 대한 불인내란 모호한 상황을 위협의 근원으로 지각하거나 해석하는 경향이며, 모호성에 대한 인내란 모호한 상황을 바람직한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모호성 인내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모호성 인내척도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모호성 인내에 차이가 없다는

표 1. 로샤 변인 설명

| 로샤 변인 | 변인 설명 | 측정된 심리적 특성 |
|-------------------|--|--------------------------------|
| R | 전체 반응수 | 언어적 생산성 |
| 대처 관련 변인 | | |
| EA | 경험 실제(Experience Actual) | 적절한 대처자원 |
| CDI | 대응손상지표(Coping Deficit Index) | 대응손상지표 |
| Adj D | 조정 D점수로, EA - Adj es로 산출 | 주관적인 심리적 고통의 최소화 |
| EB | 경험형(Erlebnistypus)으로, 인간운동반응(M)의 합과 가중치를 부여한 색채반응의 합(WSumC)의 비율, 즉 $M : WSumC$ | 대처 유형 |
| 내향형 | $M \geq WSumC + 2$ (EA ≤ 10일 때) 또는 $M > WSumC + 2$ (EA > 10일 때) | 일관성 있는 대처 유형 (관념적 대처 방식 선호) |
| 외향형 | $M + 2 \leq WSumC$ (EA ≤ 10일 때) 또는 $M + 2 > WSumC$ (EA > 10일 때) | 일관성 있는 대처 유형 (표현적 대처 방식 선호) |
| 양가형 | 내, 외향형이 아니고 $\Lambda < 1.0$ 일 때 | 비일관적인 대처 유형 |
| EA < 4 | EA < 4 | 대처자원 빈약으로 대처유형 분류불가 |
| 방어 관련 변인 | | |
| Lambda(람다) | 순수 형태 반응(F)의 비율 | 경험에 대한 개방성 |
| .30 - .99 | 주의의 초점이 균형을 이루고 있음 | |
| > .99 | 좁은 주의의 초점 | |
| < .30 | 넓은 주의의 초점 | |
| Zd | 처리 효율성 | 정보의 효율적 조직화 |
| $Zd \leq \pm 3.0$ | 정상범위 | |
| $Zd > +3.0$ | 과다통합자 | |
| $Zd < -3.0$ | 과소통합자 | |
| X-% | 왜곡된 형태사용(Distorted Form Use) | 현실적 지각 |
| Xu% | 드문 형태사용(Unusual Form Use) | 관습적 지각 |
| W : D : Dd | 경제성 지표(Economy Index) | 관습적 지각 |
| W | 전체 반점 영역(Whole Response) | |
| D | 자주 사용되는 반점 영역(Common Detail Response) | |
| Dd | 드물게 사용되는 반점 영역(Unusual Detail Response) | |
| P | 평범반응(Popular) | 관습적 지각 |

기본가정이 충족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로샤 검사(Rorschach Inkblot test)

로샤 검사는 1921년 Rorschach(1942)에 의해 개발된 대표적인 투사적 검사로서 10장의 잉크반점 카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Exner(1993, 2003)의 종합체계에 따라 로샤 검사를 실시, 채점하였으며, 수많은 로샤 변인들 가운데 통제 및 스트레스 내성 군집은 대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고, 정보처리와 인지적 중재 군집에서 지각의 왜곡과 관련된 변인들은 방어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선정한 구체적인 변인과 그 변인이 측정하는 심리적 속성에 대한 설명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로샤 검사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행동특징을 보일 것이라 가정하였다. 그 중에서 세 가지 행동 특징, 즉 반응단계에서 검사자에게 오히려 질문을 던지는 것, ‘모르겠다’ 혹은 ‘아무 것도 볼 수 없다’는 반응, 그리고 각 카드에서 첫 반응의 지연에 주목하여 이를 비교하였다.

로샤 검사의 실시는 대학원을 졸업한 후 임상심리전문가 과정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고 있는 수련생과 임상심리전문가가 담당하였고, 이들이 일차적으로 채점한 것을 임상심리전문가인 본 연구진 2인이 이차로 검토, 수정하여 최종 분석을 시행하였다.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로샤 검사 원자료를 무작위로 10개 뽑아서 각 반응에 대한 검사자의 일차 채점과 본 연구진의 이차 채점 간에 일치도를 살펴본 결과, 일치도는 83.03%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분석방법

남북한 출신 및 성별에 따라 네 집단으로 구분한 후, 네 집단 간 로샤 검사에서 대처 및 방어 관련 변인과 검사 상황에서 나타난 행동적 특징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비연속 변수에 대해서는 카이제곱분석을 실시하였고, 연속변수에 대해서는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경우 Duncan test를 사용하여 사후 검증하였다. 전체 반응수에 따라 로샤 변인의 빈도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R, Adj D, CDI, EB를 제외한 모든 로샤 변인들은 전체 반응수 중 몇 %에 해당하는지 백분율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은 윈도우용 SPSS 17.0을 사용하였다.

결 과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에 제시하였다.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분포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chi^2(1, N=86) = .15, p > .05$). 성별에 따른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연령 분포는 거의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chi^2(9, N=86) = 9.56, p > .05$). 학력 분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chi^2(9, N=86) = 38.82, p < .001$), 남한주민은 남녀 모두 고졸과 대졸이상이 다수였으나, 북한이탈주민은 중졸과 고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른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결혼 상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9, N=86) = 13.90, p < .05$). 여자의 경우, 남한주민은 기혼이 많은 반면, 북한이탈주민은 미혼이 많은 편이었다. 교육수준

표 2. 양측 주민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 | 남한주민 | | 북한이탈주민 | |
|-------|--------|--------|--------|--------|--------|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 | (n=17) | (n=25) | (n=16) | (n=28) |
| 연령 | 20대 | 8 | 7 | 6 | 10 |
| | 30대 | 3 | 6 | 3 | 9 |
| | 40대 | 3 | 10 | 4 | 9 |
| | 50대 이상 | 3 | 2 | 3 | 0 |
| 교육 수준 | 초졸 | 0 | 0 | 0 | 1 |
| | 중졸 | 1 | 1 | 8 | 18 |
| | 고졸 | 10 | 15 | 6 | 8 |
| | 대졸 이상 | 6 | 6 | 0 | 0 |
| | 결측치 | 0 | 3 | 2 | 2 |
| 결혼 상태 | 미혼 | 8 | 8 | 6 | 14 |
| | 기혼 | 8 | 16 | 6 | 6 |
| | 기타 | 1 | 1 | 4 | 8 |

과 결혼상태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성별과 연령에서는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모호성 인내라는 성격특성에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집단 간 차이가 없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러한 기본 가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네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호성 인내의 평균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F(3, 82) = .99, p > .05$).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검사 반응과 행동적 특징에 로샤 검사 상황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처와 방어가 반영될 것이라는 가정이 일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양측 주민들의 로샤 대처 관련 변인

양측 주민의 로샤 검사에서 대처 관련 변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로샤 검사에서 대처와 관련이 있다고 선정한

표 3. 양측 주민의 로샤 검사에서 전체반응수와 대처 관련 변인

| 로샤 변인 | 남한주민 | | 북한이탈주민 | | F 또는 χ^2 | Post hoc |
|------------|---------------------------|---------------------------|---------------------------|---------------------------|---------------|-----------|
| | 남자 ^a (n=17) | 여자 ^b (n=25) | 남자 ^c (n=16) | 여자 ^d (n=28) | | |
| R (전체반응수) | 19.59(6.18) | 20.68(6.26) | 19.25(5.73) | 18.86(5.46) | .447 | |
| EA (%) | 29.12(15.04) | 32.19(13.69) | 35.49(23.27) | 21.22(15.21) | 3.171* | b,c > d |
| CDI | 3.35(1.27) | 3.20(1.29) | 3.19(1.42) | 3.64(.99) | .745 | |
| Adj D | -.53(1.23) | -.24(1.27) | -.06(1.44) | -1.46(1.64) | 4.677** | a,b,c > d |
| EB (N [%]) | | | | | 13.133* | |
| 내·외향형 | 4(23.5%) | 10(40.0%) | 8(50.0%) | 7(25.0%) | | |
| 양가형 | 9(52.9%) | 9(36.0%) | 4(25.0%) | 6(17.9%) | | |
| EA < 4 | 4(23.5%) | 6(24.0%) | 4(25.0%) | 16(57.1%) | | |

주 1. ()안은 표준편차이고 (%)안은 해당 집단에서의 비율임.

주 2. * $p < .05$, ** $p < .01$.

변인은 Exner (2003)의 통제 및 스트레스 내성 군집에 포함된 변인들로, 주로 대처자원과 대처양식을 나타내는 변인들이다. 이들은 적절한 자원과 관련 있는 경험 실제(Experience Actual, EA)와 CDI, 주관적 심리적 고통의 최소화화 관련 있는 조정 D점수, 그리고 대처의 일관성과 관련 있는 경험형(Erlebnistypus, EB)이었다. 로샤 검사에서 빈도를 측정하는 변인들은 전체 반응수(R)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먼저 분석하였다. 성별에 따라 양측 주민을 구분한 후, 전체 반응수를 비교한 결과,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F(3, 82) = .447, p > .05$).

대처 관련 변인 중 CDI에서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F(3, 82) = .745, p > .05$), EA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고($F(3, 82) = 3.171, p < .05$), 사후 검증 결과, 여자 북한이탈주민이 남자 북한이탈주민과 여자 남한주민에 비해 EA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 북한이탈주민이 다양한 스트레스를 다룰만한 대처자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함을 시사한다. 또한 조정 D점수(Adj D)에서 네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는데($F(3, 82) = 4.677, p < .01$), 네 집단의 Adj D가 모두 음수로서 이는 상황적 스트레스가 제거된 후에도 대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후검증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여자 북한이탈주민은 Adj D가 유의하게 낮았다.

다음으로 살펴볼 EB 유형은 인간운동반응(M)과 가중치를 부여한 색채반응합(WSumC)의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내향형, 외향형, 및 양가형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EA < 4 인 경우에는 대처 자원 자체가 빈약하여 뚜렷한 대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의 타당성을 보장하기 어렵다(Exner, 2003, p.286). 내향형은 관념적 방식

을, 외향형은 표현적 방식을 선호하지만 모두 일관성 있는 대처유형으로 간주된다. 양가형은 내향형이나 외향형 중 어느 한 가지를 선호하지 않는, 비일관적인 대처 유형으로, 두 가지 대처를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한 방법을 사용할 때보다 비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심지어 유사한 상황에서도 다양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여 가까운 사람들조차 이들을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Weiner, 2003/2005, p 193).

본 연구에서는 내향형과 외향형을 하나로 결합하여 내·외향형, 양가형 및 대처자원 빈약(EA<4)으로 구분하여 빈도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EB 유형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6, N=86) = 13.133, p < .05$). 남한주민의 경우, 남자는 내향형 또는 외향형이 4명(내향형 4명, 외향형 0명), 양가형이 9명이었고, 여자는 내향형이나 외향형이 10명(내향형 7명, 외향형 3명), 양가형이 9명이었다. 북한주민의 경우, 남자는 내향형이나 외향형이 8명(내향형 7명, 외향형 1명), 양가형이 4명이었으며, 여자는 내향형이나 외향형이 7명(내향형 4명, 외향형 3명), 양가형이 6명이었다. 남한 주민의 경우, 남자는 양가형(52.9%)이 가장 많은 반면, 여자는 내·외향형(40.0%)과 양가형(36.0%)이 비슷한 비율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자는 내·외향형(50.0%)이 가장 많았으나 여자는 자원빈약(57.1%)이 가장 많았고 내·외향형(25.0%)과 양가형(17.9%)이 비슷한 비율이었다.

양측 주민들의 로샤 방어 관련 변인

로샤 검사에서 방어와 관련이 있다고 선정한 변인은 Exner(2003)의 정보처리 및 인지적

중재 군집 및 Weiner(2003/2005)의 경험에 대한 주의 차원에 포함된 변인들로, 주로 지각의 왜곡과 관련이 있다. 이들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나타내는 Lambda, 정보 조직화의 효율성과 관계있는 Zd, 사상에 대한 현실적 지각 여부를 잘 나타내는 X-%, 사상에 대한 관습적 지각을 나타내는 W:D:Dd, Xu%, 평범반응(P)이었다. 양측 주민의 로샤 검사에서 방어 관련

변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방어 관련 변인들 가운데, 가장 먼저 살펴볼 Lambda는 순수 형태(pure F) 반응의 비율로, 그 값이 .30~.99 범위에 속하면 주의의 초점이 균형을 이루고 있고 이와 관련된 적응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된다. Lambda > .99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부족하고 주의의 초점이 지나치게 좁은, 회피적인 경향을 나타

표 4. 양측 주민의 로샤 검사에서 방어 관련 변인

| 로샤 변인 | 남한주민 | | 북한이탈주민 | | F 또는 χ^2 | Post hoc |
|------------------|---------------------------|---------------------------|---------------------------|---------------------------|---------------|----------|
| | 남자 ^a (n=17) | 여자 ^b (n=25) | 남자 ^c (n=16) | 여자 ^d (n=28) | | |
| Lambda | .75(.53) | .70(.52) | .97(1.45) | .65(.43) | .644 | |
| .30 ~.99 (N [%]) | 10(58.8%) | 11(44.0%) | 10(62.5%) | 18(64.3%) | 3.01 | |
| > .99 | 4(23.5%) | 7(28.0%) | 3(18.8%) | 4(14.3%) | | |
| < .30 | 3(17.6%) | 7(28.0%) | 3(18.8%) | 6(21.4%) | | |
| Zd | -1.03(11.55) | -1.30(5.48) | -2.34(3.51) | -2.54(3.89) | .286 | |
| ≤ ±3.0 (N [%]) | 7(41.2%) | 13(52.0%) | 7(43.8%) | 13(46.4%) | 2.645 | |
| > +3.0 | 2(11.8%) | 4(16.0%) | 1(6.3%) | 2(7.1%) | | |
| < -3.0 | 8(47.1%) | 8(32.0%) | 8(50.0%) | 13(46.4%) | | |
| X-% | .14(.11) | .18(.10) | .21(.17) | .24(.10) | 2.806* | a < d |
| Xu% | .35(.19) | .30(.11) | .21(.08) | .28(.13) | 3.378* | a,b > c |
| W: D : Dd | | | | | | |
| W (%) | 41.56(14.98) | 48.70(22.21) | 41.11(19.35) | 32.44(12.88) | 3.776* | b > d |
| D (%) | 45.97(21.40) | 41.39(18.68) | 49.66(15.32) | 51.65(14.73) | 1.658 | |
| Dd (%) | 12.47(11.82) | 9.91(11.13) | 9.23(13.25) | 15.91(10.71) | 1.647 | |
| P (%) | 21.26(12.11) | 24.04(10.53) | 28.52(9.53) | 22.39(8.30) | 1.735 | |
| 4-7개 (N [%]) | 10(58.8%) | 19(76.0%) | 13(81.3%) | 19(67.9%) | 5.586 | |
| 4개 미만 | 7(41.2%) | 6(24.0%) | 2(12.5%) | 8(28.6%) | | |
| 8개 이상 | 0(0.0%) | 0(0.0%) | 1(12.5%) | 1(3.6%) | | |

주 1. ()안은 표준편차이고 (%) 안은 해당 집단에서의 비율임.

주 2. * $p < .05$.

내는 반면, $\Lambda < .30$ 은 주의의 초점이 너무 넓어서 경험에 대해 지나치게 개방적인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Weiner, 2003/2005, p.143). 성별에 따른 양측 주민들의 Λ 값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F(3, 82) = .644, p > .05$), 남자 북한이탈주민은 Λ 의 평균이 .97로 정상범위에 속하기는 하지만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Λ 값의 범위에 따라 세 수준으로 구분했을 때 정상범위에서 주의의 초점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사례는 남한주민의 경우, 남자 10명(58.8%), 여자 11명(44.0%)인데 비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자 10명(62.5%), 여자 18명(64.3%)으로 다소 높은 비율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chi^2(6, N=86) = 3.01, p > .05$).

다음으로 살펴볼 Zd는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과 받아들이는 정보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간의 균형과 관련이 있는데, 네 집단 간 Zd 값에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3, 82) = .286, p > .05$). Zd에 따라 정상범위, 과다 통합자(over-incorporator), 과소 통합자(underincorporator)로 분류하여 그 분포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chi^2(6, N=86) = 2.645, p > .05$),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자의 50.0%, 여자의 46.4%가 과소통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소통합자들은 정보를 적게 받아들이고 이로 인해 자신의 경험에 대한 탐색도 적절한 수준보다 낮은 경향이 있으며,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을 피상적으로 검토한 뒤에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 쉽고, 이는 적용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현실적 지각을 반영하는 X-%에서 네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으며($F(3, 82) = 2.806, p < .05$). 사후 검증 결과, 여자 북한이탈주민은 남

자 남한주민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현실적 지각의 왜곡이 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습적 지각과 관련이 있는 세 가지 변인 중 하나인 Xu%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X-%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Xu% 또는 X+%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드문(unusual) 반응은 반응에 포함된 반점의 기본 윤곽이 기준집단에서 낮은 빈도로 사용되었지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적절한 반응일 때 채점되며, Xu%는 이러한 드문 반응의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Xu%가 .22 보다 높은 경우 세계를 보는 방식이 대부분의 사람보다 특이하고 더 모험적인 경향이 있는데, 남자 북한주민을 제외한 세 집단의 평균 Xu%가 모두 .22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다. Xu%에서 네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고($F(3, 82) = 3.378, p < .05$), 사후 검증 결과, 남녀 남한주민은 남자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Xu%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W:D:Dd를 살펴보았는데, 전형적으로 비환자 성인과 젊은 사람들은 반응의 약반이 D 반응이고, 1/2-1/3은 W 반응이고, 나머지 1/6 정도가 Dd 반응이다(Weiner, 2003/2005, p.154). D 반응과 Dd 반응의 비율에서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각각 $F(3, 82) = 1.658, p > .05, F(3, 82) = 1.647, p < .05$), W 반응의 비율에서는 네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F(3, 82) = 3.776, p < .05$). 사후검증에서 여자 북한이탈주민이 여자 남한이탈주민에 비해 W 반응의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평범반응의 비율은 네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3, 82) = 1.735, p > .05$). 평범반응의 빈도 분포를 비교한 결과 역시 유의하지 않았으나($\chi^2(6, N=86) = 5.586, p > .05$), 남자 남한주민의 41.2%와

여자 남한주민의 24.0%, 그리고 여자 북한이탈주민의 28.6%가 평범반응의 빈도가 4개 미만으로 낮았다. 평범반응의 빈도가 낮고 동시에 Xu%가 높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동조하지 않고 자기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평범반응의 빈도가 낮고 동시에 X-%가 높은 경우 단순히 비판습적 지각보다 부정확한 지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Weiner, 2003/2005, p.156)에서 여자 북한이탈주민의 지각적 왜곡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측 주민들의 로샤 행동적 특징

로샤 검사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수검자가 의식적, 무의식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 부산물로 반

응시간의 지연과 다양한 행동적 특징을 나타낼 것이라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카드에서 첫 반응시간과 로샤 검사에서 채점되지 않는 몇 가지 행동적 특징을 비교하였다. 먼저, 10장의 로샤 카드에서 첫 반응을 하는데 걸린 시간을 비교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한주민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의 반응시간이 전반적으로 느리다는 공통적인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여자 북한이탈주민은 거의 모든 카드에서 심하게 지연된 반응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카드 I에서 첫 반응시간이 남한주민의 경우 남자 7.65±7.04초, 여자 3.96±3.85초인데 반해, 북한이탈주민은 남자 14.31±13.04초, 여자 16.18±15.46초로, 지연되어 있었으며, 네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

표 5. 양측 주민들의 로샤 카드별 반응시간(sec)

| | 남한주민 | | 북한이탈주민 | | F | Post hoc |
|---------|---------------------------|---------------------------|---------------------------|---------------------------|-----------|------------|
| | 남자 ^a (n=17) | 여자 ^b (n=25) | 남자 ^c (n=16) | 여자 ^d (n=28) | | |
| 카드 I | 7.65(7.04) | 3.96(3.85) | 14.31(13.04) | 16.18(15.46) | 6.306** | b<c, a,b<d |
| 카드 II | 12.00(10.01) | 12.20(15.47) | 14.25(12.79) | 28.11(20.25) | 5.934** | a,b,c < d |
| 카드 III | 7.88(4.46) | 10.00(13.91) | 14.67(9.43) | 37.52(45.66) | 6.029** | a,b,c < d |
| 카드 IV | 22.75(40.18) | 9.28(6.41) | 20.19(21.64) | 46.50(57.56) | 4.260** | a,b < d |
| 카드 V | 5.76(7.64) | 4.96(3.12) | 9.63(9.51) | 17.26(11.80) | 10.392*** | a,b,c < d |
| 카드 VI | 17.94(15.02) | 14.60(11.24) | 26.47(17.53) | 49.63(54.18) | 5.665** | a,b,c < d |
| 카드 VII | 13.18(9.55) | 10.56(6.76) | 24.44(12.53) | 34.89(36.33) | 6.288** | a,b < d |
| 카드 VIII | 11.50(7.55) | 14.72(14.04) | 14.63(9.76) | 29.14(36.24) | 2.888* | a < d |
| 카드 IX | 23.00(17.23) | 15.48(12.83) | 31.13(32.79) | 46.32(56.81) | 3.281* | b < d |
| 카드 X | 22.29(21.04) | 10.12(9.74) | 15.19(7.30) | 35.64(37.47) | 5.391** | b,c < d |

주 1. ()안은 표준편차임.

주 2. * p < .05, ** p < .01, *** p < .001.

표 6. 양측 주민들의 로샤 검사 상황에서 행동적 특징

| 로샤 변인 | 남한주민 | | 북한이탈주민 | | F | Post hoc |
|-----------|---------------------------|---------------------------|---------------------------|---------------------------|-------|----------|
| | 남자 ^a (n=17) | 여자 ^b (n=25) | 남자 ^c (n=16) | 여자 ^d (n=28) | | |
| 질문 반응 | .12(.33) | .24(.66) | .19(.40) | .39(.74) | .87 | |
| ‘모르겠다’ 반응 | .12(.33) | .16(.47) | .38(.72) | .68(1.05) | 2.94* | a,b < d |
| 질문 + 모르겠다 | .24(.56) | .40(.82) | .56(.81) | 1.07(1.36) | 3.21* | a,b < d |

주 1. ()안은 표준편차임.

주 2. * $p < .05$, ** $p < .01$.

다($F(3, 82) = 6.306, p < .01$). 사후 검증에서 남자 북한이탈주민은 여자 남한주민에 비해 반응시간이 느렸고, 여자 북한이탈주민은 남녀 남한주민에 비해 반응시간이 느린 양상을 나타내었다. 여자 북한이탈주민은 이후 모든 카드에서 지연된 반응을 나타내었고, 비교적 쉽고 명백한 카드 V에서 반응시간이 17.26 ± 11.80 초로, 다른 카드에 비해 빨라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지연된 반응을 보였다. 남한주민의 경우, 평균 반응시간이 30초 이상 지연된 카드가 없는데 반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자는 카드 IX에서, 여자는 카드 III, IV, VI, VII, IX, X에서 평균 반응 시간이 30초 이상 지연된 양상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로샤 검사를 수행하는 동안 관찰된 행동특징을 살펴보면, 카드를 받고 반응을 하기보다 오히려 검사자에게 질문을 한 빈도에서는 네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3, 82) = .87, p > .05$). 그러나 각 카드의 첫 반응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의 빈도에서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3, 82) = 2.94, p < .05$), 사후검증에서 여자 북한이탈주민이 남녀 남한주민에 비해 더 빈번하게 ‘모르겠다’는 반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의도적으로 반응을 왜곡할 수 있는 자기 보고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실험법이나 투사적 검사처럼 다차원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선행 연구의 주장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로샤 검사에 나타난 대처와 방어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북한이탈주민의 대처와 방어는 그동안 여러 연구에서 다루어온 주제로, 정신건강, 주관적인 삶의 질, 행복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예: Valliant, 1994). 북한이탈주민의 대처와 방어는 이들의 남한 정착과정에서 적응을 이해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본 연구에서 Haan(1977)의 방어기제 이론과 Ursin 등(2004)의 스트레스의 인지적 활성화 이

론에 따라 대처와 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양측 주민의 로샤 반응을 비교하였다. 대처와 방어는 모두 스트레스 반응을 약화시키도록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대처와 달리, 방어는 현실의 어떤 측면을 왜곡해서 지각하고 적응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간주하였고, Exner(1993, 2003)의 통제 및 스트레스 내성 군집과 정보처리 및 인지적 중재 군집에서 대처 및 방어와 관련된 변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양측주민의 대응손상지표(CDI)에서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전반적인 대처자원이 빈약하여(낮은 EA)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Adj D < 0). 특히, Adj D의 음수 값이 크면 클수록 무능력과 관련된 취약성이 더 크고 만성적인 심리장애를 나타내거나 성취수준이 제한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Weiner, 2003/2005, p.192), Adj D < -1이면 장기간 대처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이 비효율적이었거나 만성적인 스트레스 장애로 효율적인 대처능력이 붕괴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추가로, Adj D < -1인 사례를 조사한 결과, 남자 남한주민 3명(17.6%), 여자 남한주민 5명(20.0%), 남자 북한이탈주민 2명(12.5%)이 해당되었으나 여자 북한이탈주민은 15명(53.6%)이나 Adj D < -1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처유형의 효율성을 살펴본 결과, 여자 남한주민과 남자 북한이탈주민에서 비교적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처유형인 내향형이나 외향형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으나 남자 남한주민의 경우 양가형이 많았고 여자 북한이

탈주민의 경우 대처자원 빈약으로 대처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가 많았다. 대처자원 빈약을 제외하고 대처 유형을 내, 외향형이나 양가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례만을 별도로 대처의 융통성과 관련된 EBPer(EB Pervasive)를 분석해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chi^2(2, N=56) = 2.844, p > .05$), 남한주민 9명(28.1%)과 북한이탈주민 12명(50.0%)에서 EBPer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이 선호하는 대처유형을 일관성 있게 사용하지만 다양한 환경적 요구를 고려하여 자신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융통성이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상당수가 양호한 대처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융통성이 부족하고 경직되어 있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셋째, 방어와 관련해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나 정보의 효율적 조직화 측면에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현실적 지각 및 관습적 지각에서 일부 차이가 발견되었다. 남한주민의 경우, 남녀 모두 사회적 요구나 기대를 무시하고 개성을 강조한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으나(높은 Xu%) 현실을 왜곡할 정도로 심한 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반면에, 여자 북한이탈주민은 현실에서 어떤 측면을 왜곡해서 지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높은 X-%). X-%가 .20보다 크면 클수록 사상을 부정확하게 지각하고 자신에 대한 부정확한 인상을 형성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과 의도를 부정확하게 해석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상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Weiner, 2003/2005, p.148). 또한 부정확한 지각으로 인해 잘못된 결론과 행동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적절한 적응을 방해하는 판단착오를 야기할 수도 있다.

넷째, 여자 북한이탈주민은 대부분의 로샤 카드에서 반응시간이 유의하게 지연되었다. 로샤 잉크반점이라는 시각자극이 입력된 후 첫 반응이 나오기까지 대략 5-9초가 경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Exner, 2003). 실제로 입력(input)과 출력(output) 사이에 시간 지연이 존재하는데, 이 때 자극의 분류, 가능성 낮은 잠재적 반응의 포기, 검열을 통한 잠재적 반응의 포기, 특성이나 스타일 혹은 상태 영향에 의한 반응 선택이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수검자의 대처와 방어가 작동할 것이라 추론할 수 있으며, 여자 북한이탈주민의 지나치게 긴 반응시간은 비효율적인 대처와 방어를 시사한다. 또한 Schafer(1954)가 억압을 나타내는 로샤 변인의 하나로, 반응 실패나 반응시간의 지연을 언급한 바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 카드의 속성을 고려한 반응시간을 살펴 보면, 카드 I은 처음 제시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수검자에게 새롭고 친숙하지 않는 과제이고 때로는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다(Weiner, 2003/2005, p.130). 따라서 카드 I에 대한 접근 방식은 일상에서 새로운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러나 카드 I은 비교적 쉬운 카드로 간주되며, 실제로 첫 반응을 하는데 걸린 평균 반응시간은 5.79 ± 2.38 초이었다(Exner, 2003, p.168). 본 연구에서 남한주민은 이와 유사한 반응시간을 보였으나, 북한이탈주민은 유의하게 지연된 반응시간을 나타내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쉽고 명확한 자극인 카드 V에서도 유의하게 지연된 반응을 보였다. 남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카드 I에서 첫 반응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이후의 카드에서는 남한주민과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는데, 이는 로샤 검사가 진행됨에 따라 과제의 모호성에 익숙해지고 적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응시간이 빠른 순서대로 나열하면 여자 남한주민, 남자 남한주민, 남자 북한이탈주민, 여자 북한이탈주민의 순이지만, 비교적 쉬운 카드 I, V에서 반응시간이 빠르고 비교적 어려운 카드 IV, VI, IX에서 반응이 지연되는 등, 카드별 반응시간의 패턴은 대체로 유사하였다. 이는 카드별 반응시간이 각 카드의 객관적인 곤란도의 함수라는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기도 하다(Meer, 1955).

다섯째, 여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낮설고 모호한 검사 상황에서 상당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자 북한이탈주민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더 빈번하게 하였고, 이는 여자 북한이탈주민의 대처자원이 빈약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검사도 중 여자 북한이탈주민이 보인 이러한 행동은 일종의 대처 전략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대응함으로써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면서 느끼는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검사자로부터 더 많은 격려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모호성 인내라는 측면에서 양측주민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이들이 로샤 검사의 모호성에서 경험한 스트레스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자들은 카드 I에서 첫 반응이 지연되었으나 곧 과제에 익숙해지고 적응할 수 있었으나, 여자들은 검사자로부터 격려와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동 특징을 나타내고 지속적인 반응지연을 나타내었다. 로샤 변인에서도 여자 북한이탈주민은 대처자원이 빈약하고 대처와 방어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있었고, 만성적인 적응의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에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 정신건강 측면에서 더 취약하다는 결과는 선행연구들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예컨대, 남한에 7년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여자가 남자에 비해 불안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조영아 등, 2009), CES-D에서 25점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임상적 우울에 해당되는 비율은 남자가 33.33%인데 비해, 여자는 43.8%로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비율의 우울성향을 보였다(김미령, 2005). 이렇게 여자 북한이탈주민이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와 취약성을 보이는 것은 적응적인 대처 자원이 빈약하기 때문일 수 있다. CDI가 유의하지 않지만 EA가 낮은 경우, 사회기술훈련이 필요하고 이러한 훈련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기술훈련의 유용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Weiner, 2003/2005, p.184). 이러한 경향을 감안할 때 젊은 연령층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과 정신건강을 위한 개입을 할 때 성별에 따라 차별화된 개입이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여자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사회기술이나 대처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연구방법 측면에서도 생각해볼만한 이슈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질문지나 면접처럼 자기보고에 의존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한 가지 대안으로 로샤 검사와 같은 투사적 검사가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 양측 주민에게 로샤 검사를 실시하고 몇 가지 로샤 변인들을 비교하였는데, 수량화된 로샤 변인 못지않게 검사상황에

서 관찰된 행동적 특징의 중요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카드별 반응시간과 더불어, 검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모르겠다’는 반응을 한 행동만 분석하였으나, 실제로 어떤 북한이탈주민들은 검사 도중에 얼굴 표정에 긴장한 듯 한 모습이 역력하였고 어떤 이들은 검사가 끝난 후, 이것이 무엇을 알아보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동적 특징이 분석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이러한 특징이 수검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질문지나 면접을 사용해서 연구를 하더라도, 반응시간을 측정하거나 행동관찰을 체계적으로 하여 보완하는 것도 신뢰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로샤 검사와 같은 투사적 기법을 적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처와 방어를 살펴보았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또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로샤 검사에서 대처 및 방어와 관련된 몇 가지 변인을 선정하여 이를 분석하였으나, 로샤 검사에서 어느 한 부분만을 가지고 수검자에 대한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로샤 검사를 유용하게 활용하려면 단일 변인만을 검토해서는 안 되며, 수검자가 사용한 용어나 반응내용의 주제, 구조적 요약, 그리고 카드 I에서 카드 X까지 일련의 반응과 반응채점을 계열적으로 검토해야 비로소 로샤 검사를 유용하게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집단별로 평균을 비교함으로써 개개인의 독특한 특성이 무시되고 수량화할 수 없는 변인은 분석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로샤 검사의 국내 규준이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아, Exner(2003)와 Weiner

(2003/2005)의 기준을 토대로 해석을 했다는 점이다. 국내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의 기준이 참조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사회문화적 특징에 따라 로샤 반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과를 해석하는데 신중성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모두 각각의 모집단을 대표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며, 각 집단에 충분한 수의 연구대상자가 포함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통계적 검증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남녀별로 대표성이 있는 충분한 사례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 로샤 검사의 모호성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스트레스를 줄 것이고 검사 상황에서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처와 방어가 작동할 것이라 가정하였으나 실제로 로샤 검사가 이들에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었는지를 검증하지 못했다. 따라서 로샤 검사가 끝난 후, 이러한 검사가 얼마나 모호하고 어렵게 느껴졌는지, 그것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었는지 주관적으로 평정하도록 하는 한편, 검사를 수행하는 동안 생리적 측정치를 평가할 수 있었다면 좀 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스트레스의 인지적 활성화 이론에 따르면, 대처와 방어는 일반적이고 불특정적인 신경생리적 활성화 또는 스트레스 반응을 약화시키도록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리적 측정치의 평가는 대처와 방어의 작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주관적 보고는 왜곡하거나 은폐할 수 있지만 생리적 측정치를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쉽지 않기 때문에, 생리적 측정치는 자기보고의 한계를 보완하는 하나의 연구방법으로 제안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이 수많은 로샤 변인

들 가운데, Haan(1977)과, Ursin 등(2004)의 개념을 잘 반영한다고 판단한 변인들을 대처 및 방어 관련 변인으로 포함시켰으나, 이 변인들의 타당도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들을 보완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과거 경험, 즉 탈북과정에서 겪은 외상적 경험과 다양한 적응의 지표들, 그리고 로샤 검사에 나타난 대처와 방어 간에 관련성을 다루는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04). 북한연구 방법론. 한울아카데미, 329-330.
- 김광익 (1999). 문화소통과 문화 통합: 통일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 이정복 외. 21세기 민족통일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 145-174.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미령 (2005). 북한이탈 주민들이 인지한 적응의 어려움과 극복자원이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남성과 여성의 비교.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0, 95-124.
- 김연희 (2006). 북한이탈주민의 정신보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종남, 최윤경, 채정민 (2008). CES-D와 로샤 검사를 통해 본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2), 41-61.
- 신행우, 이종한, 한성열, 허태균, 채정민 (2004). 이문화권내 적응과 스트레스 대처양식: 북한이탈주민 남한문화 적응의 관점에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1), 147-163.
- 아시아 투데이 (2009.6.29). 탈북자 1만5631명

- 시대. 5면.
- 엄태완 (2005).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8, 5-32.
- 유정자 (2006). 재중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 보호기관 대상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민, 황선영 (2008).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정책*, 33, 61-84.
- 장재운 (1993). 환경변화지각에 있어서의 개인차 및 친숙도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6(1), 108-128.
- 조영아 (2003). 남한 내 북한 이탈 주민의 자아방어기제 연구: 남한 주민 및 재한 조선족과의 비교.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영아, 김연희, 유시은 (2009). 남한 내 7년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예측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 329-348.
- 조영아, 전우택, 유정자, 엄진섭 (2005).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예측요인: 3년 추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467-484.
- 채정민 (200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심리적 문화적응기제와 적응행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채정민, 이종환 (2004).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남북한 문화 이질성: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2), 79-101.
- 채정민, 한성열 (2003).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고양 편파가 남한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2), 101-126.
- 최창동 (2000).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두리미디어.
- Ataca, B., & Berry, J. W. (2002). Psychological, sociocultural and marital adaptation of Turkish immigrant couples in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7(1), 13-26.
- Biondi, M., & Picardi, A. (1999). Psychological stress and neuroendocrine function in humans: The last two decades of research.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68, 114-150.
- Budner, S. (1962). Intolerance of ambiguity as a personality variable. *Journal of Personality*, 30, 29-50.
- Eriksen, H. R., Nordby, H., Olf, M., & Ursin, H. (2000). Effects of psychological defense on processing of neutral stimuli indicated by event-related potentials(ERP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1, 263-267.
- Eriksen, H. R., Olf, M., & Ursin, H. (1997). The CODE: A revised battery for coping and defense and its relations to subjective health.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38, 175-182.
- Exner, J. E. (1993). *The Rorschach: A Comprehensive System, Vol. 1. Basic foundations* (3rd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Exner, J. E. (2003). *The Rorschach: A Comprehensive System, Vol. 1. Basic foundations and principles of interpretation* (4th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Gravdal, L., & Sandal, G. M. (2006). The two-factor model of social desirability: Relation to coping and defense, and implications for health.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 1051-1061.
- Haan, N. (1997). *Coping and defending*. New York:

- Academic Press.
- Holt, R. (1977). A method for assessing primary process manifestations and their controls in Rorschach response. In M. Rickers- Ovsiankina, (Eds.), *Rorschach Psychology* (2nd ed.), NY: Krieger, pp.375-420.
- Lazarus, R. S. (1996). *Psychological stress and the coping process*. McGraw-Hill, New York.
- Leichsenring, F. (2004). The role of structure in the assessment of psychopathology.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0(4), 275-282.
- Lerner, P. M. (2003). 로샤검사에 대한 정신분석적 접근. (이우경, 이원혜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98에 출판)
- Lerner, P. M., & Lerner, H. D. (1980). Rorschach assessment of primitive defenses in borderline personality structure. In J. S. Kwawer, H. D. Lerner, P. M. Lerner, & A. Sugarman (Eds.), *Borderline phenomena and the Rorschach test*.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pp. 257-274.
- Levine, S., & Ursin, H. (1991). What is stress? In M. R. Brown, G. F. Koob, & C. River (Eds.), *Stress-neurobiology and neuroendocrinology*. New York: Marcel Dekker, pp.3-21.
- Meer, B. (1955). The relative difficulty of the Rorschach cards. *Journal of Projective Techniques*, 19, 43-53.
- Murstein, B. I., & Mathes, S. (1996). Projection on projective techniques = pathology: The problem that is not being addressed.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66, 337-349.
- Norton, R. W. (1975). Measurement of ambiguity toleranc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39, 607-619.
- Oloff, M., Brosschot, J. F., & Godaert, G. (1993). Coping styles and health.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5, 81-90.
- Rorschach, H. (1942). *Psychodiagnosics*. New York: Grune & Stratton. (Original work published 1921)
- Schafer, R. (1954). *Psychoanalytic interpretation in Rorschach testing*. New York; Grune & Stratton.
- Schnurr, P. P., & Green, B. L. (2004). *Trauma and health: Physical health consequences of exposure to extreme stres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 Ursin, H., & Eriksen, H. R. (2004). The cognitive activation theory of stress. *Psychoneuroendocrinology*, 29, 567-592.
- Valliant, G. E. (1994). Ego mechanisms of defense and personality psyc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1), 44-50.
- Weiner, I. B. (2005). 로르샤하 해석의 원리. (김영환, 김지혜, 홍상황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3에 출판)
- Zubin, J. (1950). Tests, construction and methodology. In R. E. Harris, J. G. Miller, G. A. Muench, L. J. Stone, H. L. Teuber, & J. Zubin (Eds.), *Recent advances in diagnostic psychological testing*.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논문투고일 : 2009. 07. 17
 1 차심사일 : 2009. 07. 22
 게재확정일 : 2009. 10. 18

The coping and defense feature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 Rorschach test

Yun Kyeung Choi

Keimyung University

Jong Nam Kim

Seoul Women's University

Jung-Min Chae

Seoul Cyber University

Coping and defense are similar psychological mechanisms to reduce stress response, but they are regarded as distinct from each other. Defense involved distortions of reality, but coping was used for strategies associated with accepting the true nature of the situation.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ping and defense feature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 Rorschach test. The subjects were then categorized into four groups based on their birth place and gender: Male North Korean defectors ($N=16$),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N=28$), male South Koreans ($N=17$), and female South Koreans ($N=25$). All subjects were individually administered the Rorschach test, and protocols were scored according to the Exner(2003)'s Rorschach Comprehensive systems. Coping or defense-related Rorschach variables were selected for analysis: EA, CDI, Adj D, EB style, Lamda, Zd, X-%, Xu%, W:Dd:D, P, reaction time, and other behavior characteristics during the testing. Compared with other groups,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were more likely to show poor coping resources (low EA), adjustment difficulties (Adj D), and distortions of reality (high X-%). They also demonstrated more 'don't know' responses and more delayed responses than other group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oor coping resources make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more vulnerable to stress, and psychological intervention such as social skills training may help them settle successfully in south Korea.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and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North Korean defectors, Rorschach test, Coping, Defense